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創 ● 奉 ●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1988년2월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51號 THE FISHING PORT NEWS 2000年 7月 25日(火曜日) 〔1〕

어항청소선 상반기에 오폐물 73만3천kg 수거 전년비 122%

캠페인 전개 등 어항환경정화 인식제고

본회 황승택 부장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중앙회 표창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 상반기 동안 제1·3종어항과 연안 그리고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제2종어항에 358일간 출동, 연 74개 항 및 연안에서 부유물 4만9,625㎏, 침전물 34만3,400㎏, 항행장애물 34만㎏ 등 총 73만3,025㎏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122%의 실적이다.

한국어항협회는 그 동안 어항청소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함께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쓰레기 투기 방지지도 등 어항관리와 관련한 예방지도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효율적인 어항청소와 어항환경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본회 황승택 부장(관리운용부)은 지난 3일 사단법인 해양환경국민운동

연합중앙회(회장 김영진)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국어항협회는 그러나 아직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항청소선별 청소실적은 다음과 같다.

△어항901호(군산 소재) : 4만1,650㎏ △어항902호(목포 소재) : 1만6,225㎏ △어항903호(고흥 소재) : 4만9,800㎏ △어항904호(여수 소재) : 5만1,550㎏ △어항905호(통영 소재) : 3만6,600㎏ △어항906호(포항 소재) : 21만8,900㎏ △어항907호(주문진 소재) : 31만8,300㎏ 등이다.

8개권역 어촌종합개발 생산·환경기반 조성

해양수산부는 부산기장 등 8개 어촌권역에 대해 올해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낙후어항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부산기장 등 8개 권역에 올해부터 생산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 소득시설사업 등을 오는 2002년까지 확충키로 했다.

권역별로는 △부산 기장 일광 △인천 강화 삼산 △강원 거진 현내 △전남 고흥 금산 △전남 함평 함평만 △경북 울릉 울릉북 △경남 남해 삼동 △제주 남제주 남원 등 8개 낙후어촌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육역지역의 경우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복지시설과 생활환경시설 등을 집중 확충하고 수역에는 어선계류시설과 유통시설 어업지원시설 등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이들 8개 어촌권역개발 사업에는 모두 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중 국고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45%와 자담 5%로 각각 충당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어촌권역의 경우 최근들어 생산기반시설 낙후로 어업 소득원이 줄어들고 있어 어업소득원 증대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촌종합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에도 15개 권역내외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시설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생활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 등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전국 1,200여개의 어촌계를 160개 권역으로 묶어 개발키로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인천 옹진백령지역 등 61개 권역은 이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됐다.

재해대책업무 규정집 발간

해양수산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해양수산시설의 공정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10일 '해양수산시설 자연재해대책업무 편람'을 발간하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에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한 업무편람에는 해양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와 올해에 적용할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 등 재해관련규정과 재해대비 어업인 지도요령 등을수록, 일선에서 재해대책업무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6.15~10.15) 중에 해양수산시설 피해예방을 위하여 본부 및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자연재해대책본부를 설치,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접근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철저한 대비로 태풍 피해 예방하자

여름 기상 전망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특히 태풍은 평년보다 많은 3~4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가 평균 2.4개인데 비해 올해는 이보다 많은 3~4개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망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해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자연재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불확실한 이동진로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피해를 입었다 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대답은 명확해진다. 태풍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태풍은 천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이를 제압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천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재로 인한 사고 만큼은 예방해 보자는 것이 하나의 대답이 될 것 같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기상위성에서 보내오는 구름사진 등을 통해 태풍의 발달과 소멸 상황 및 이동경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이제 천재에 관한 정보는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만에 하나 태풍 등으로 인해 어이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천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론은 예방 만이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우선 태풍주의보 발령시에는 석산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파제 선단부의 사석제 보호를 위해 TTP를 가거치 해야 한다. 이와함께 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야적중인 자재는 창고로 이동시키거나 배수처리를 해야 한다.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항인 입장에서의 견실한 시공은 두말 할 나위도 없고, 정부 또한 태풍기와 주요한 공정이 겹치지 않도록 발주 및 완공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발주자 입장인 정부와 시행자 입장인 어항인의 손발이 척척 잘 맞아야만 태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어항공사는 어항인과 어업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 말고서도 국가기간산업 확충이란 대명제를 생각할 때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이를 뒤집어 생각한다면 만약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선은 이를 시공하는 어항인이 외형적인 손실을 입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손실이 국가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늘만 쳐다보고 어항공사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어항공사가 근본적으로 육지공사와는 달리 낙도·벽지·오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기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통찰한다면 이제는 어항인·정부 할 것 없이 예방공사, 안전공사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때다.

수시로 기상정보를 접하여 공사를 밀고 당기고 하면서 최소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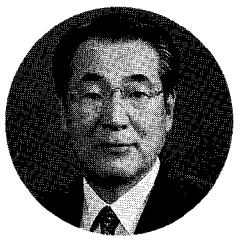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게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하늘을 상대로 맞서는 일은 터무니없는 만용이긴 하지만, 태풍이 지나갔을 때 '그때 이것을 요만큼만 저렇게 해놓았다면 좋았을 걸'하는 그런 후회는 결코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상재해로 입는 피해가 금액으로 치면 연간 2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 어항인 모두는 이 피해 대상에서 저만큼 물러나 앉을 수 있는 모든 슬기를 발휘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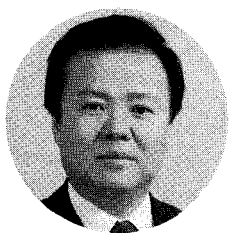
동정

주한 일본대사와 양국 수산현안에 대해 의견교환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이항규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10일 조선호텔에서 테라다 테루스케(寺田 輝介) 주한일본대사와 오찬을 갖고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상호입어 문제 및 한·일 수산자원 조성센터 설치문제 등 양국의 해양수산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 13일에는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에 참석.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7월6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 7일에는 섬유센타에서 열린 헌우회 세미나에 참석, 10일에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에 참석, 19일에는 호텔신라에서 개최된 해양정책포럼에 참석,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민선자치 5주년 기념토론회 '민선자치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참석, 20일에는 무역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7월19일 수협중앙회 강당에서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주재, 20일에는 임시총회를 주재.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7월8일 사단법인국창임방울선생문화재단 제2차 이사회를 주재, 17일에는 새천년민주당 전남도지부 한화갑 지부장 송별회에 참석, 30일에는 신문협회에서 주관하는 하계 국군장병위문에 참여.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12일 서울법대 운영위원회에 참석, 13일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조찬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하이야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조찬회에 참석, 17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행사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한국투자유치단이 주관한 독일 등 유럽순방에 참여, 10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광주시회 임시총회에 참석, 11일에는 성균관 제도개혁위원회에 참석, 12일에는 대한체육회 창립80주년 기념식에 참석, 17일에는 새천년민주당 전남도지부 한화갑 지부장 송별회에 참석, 21일에는 전남향교재단 월례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7월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8기 정보전략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3일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장단 회의에 참석, 4일에는 2000년 건설진흥촉진대회 기념식에 참석, 14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총회에 참석, 20일에는 건설 CALS/EC 업계대표 조찬간담회에 참석.

인 사

▲해양수산부 □서기관 전보 △총무과 박준영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김양수 △본부 지희진(7월1일)

취 임

▲박희도씨(전 선박안전기술원장)는 지난 7월 4일 사단법인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포 상

▲이환범씨(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 사장)은 7월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2000년 건설진흥촉진대회에서 건설산업 발전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회원가입

■단체

▲갑을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한상)

▲김엔고살베지주식회사(대표이사 이정수)

▲남광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대기)

▲대능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후근)

▲동림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공후식)

▲주식회사부흥(대표이사 이상천)

▲우림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정효림)

▲태림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권기영)

■개인

▲박재준씨(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회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사장 박성태)

▲주식회사삼건사(회장 정덕용)

▲주식회사삼양사(사장 염민웅)

▲주식회사대아건설(사장 이정균)

▲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사장 손일수)

■개인

▲김시문씨(전 수산청 차장)

▲김우현씨(해양수산부 감사관실)

▲박재준씨(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난 7월14일 일본수산토목건설기술센타 연수단이 경북 감포어항을 방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주시수협 및 본회 관계자의 안내로 감포어항을 시찰했다.

■ 한국어항협회는 제2건국운동 자체실천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헌옷 기증하기 운동'을 협회 임직원 및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전개, 수집된 옷 150여점을 지난 7월5일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기증했다.

연안자원 이용 개발 정책방향 제시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연안자원 및 공간의 보전뿐만 아니라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지난달말 개최된 제1차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했다.

동 계획안은 1999. 8. 9에 시행된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연안국토에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버금가는 연안에서의 최상위계획이다.

현재 마련된 연안통합관리계획안에서는 5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갯벌, 특정도서 등 각종 보호지역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와 연안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기존의 각종 연안개발계획의 조정 등 향후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연안관리수준을 공유수면관리라는 차원을 벗어나 해역과 육역을 포함하는 연안통합관리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향후 해양환경 개선 및 연안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어 쾌적하고 풍요로운 연안국토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 내달 확정

목포를 비롯한 남해안 4개 지역이 역사문화관광권 등 지역특색에 맞게 개발된다.

정부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대한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중 최종 확정, 발표키로 했다.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목포-부산에 걸친 남해안을 오는 21세기 동북아의 해양관광중심지로 육성키로 하고 △목포 역사관광권 △여수·남해 종합휴양관광권 △통영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 △부산 도시관광권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5조2천여억원을 투입, 국제적 관광지로 집중 개발키로 했다.

특히 역사문화관광권과 종합휴양관광권에 포함된 전남지역의 경우 남도 특유의 생활양식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환경친화적인 특별목적관광지 및 오는 2010년 세계엑스포사후시설 활용방안 차원에서 해양리조트단지로 집중 개발된다.

권역별로는 목포중심의 역사문화관광권의 경우 해남 화원관광단지, 완도 장보고 청해진유적지, 신안 갯벌지대 등과 연결해 특별목적 관광지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 관광권은 엑스포 사후시설활용차원에서 해양복합 레저위락도시로 건설되는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고흥의 나로도와 휴양림 등과 연계돼 비즈니스관광지로 개발된다.

유인등대를 해양문화공간화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해양레저 및 관광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지에 위치한 유인등대시설을 개방하여 등대의 중요성 등 해양을 알리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바다를 알고 배울 수 있는 쉼터로 개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49개소의 유인등대 중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과 소규모 공원조성이 가능한 20개소의 유인등대를 선정하고, 우선 6월부터 남해의 관광도서에 위치한 홍도, 거문도, 소매물도, 마라도, 산지등대 등 5개소와 도시공원에 위치한 울기등대를 포함 6개소의 등대원 숙소 각 1세대를 등대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연중 개방하고 있다.

개방된 등대숙소의 이용가능시설은 방 1~2실, 거실, 주방과 취사도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1회 수용가능인원은 등대별 3~4명 정도이지만 등대에 따라 8월말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이다.

어항청소선 소식

8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8. 2~7 8. 11~12 8. 23~28	선유도 및 연안 군산항 어청도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8. 10~19	안마, 계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8. 9~14 8. 23~28	녹동 나로도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8. 9~14 8. 23~28	국동 돌산, 안도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8. 9~14 8. 23~28	통영, 비진도 구조라 및 연안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8. 2~7 8. 16~21 8. 30~31	축산, 병곡, 백석 후포, 사동 직산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8. 2~7 8. 16~21	속초, 대포 대진, 거진, 아야진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 바다 바다 바다 바다는 삶의 터전 — 오염된 후 후회말고 청정수역 보전하자

신규 1·3종어항공사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중인 공사는 현행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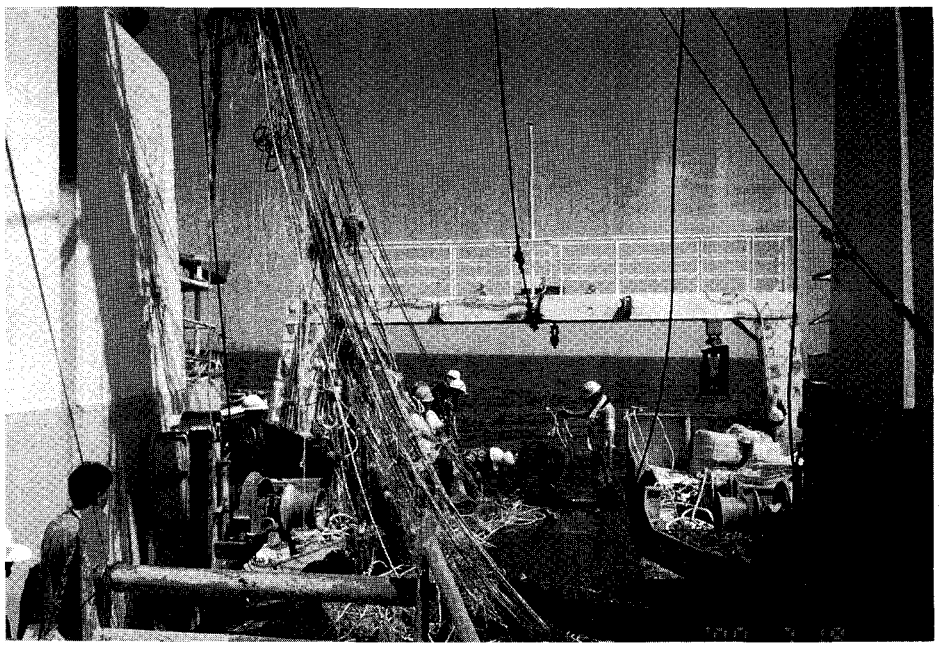
그동안 동일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할해 매년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온 어항시설물 건설공사의 계약이 앞으로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사실상 동일구조물인데도 이를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형적인 시간적·경제적 낭비사례라는 지적을 받아온 어항공사에 대해 향후 가능한 한 장기계속방식으로 계약을 집행하기로 최근 해양수산부와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발주되는 어항공사중 동일구조물인 신규 1·3종 어항공사는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는 번잡한 업무절차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의시담과정없이 한번 계약을 체결해 차수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와관련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장기계속 전환의사를 타진했으나 하자보수와 공사의 연속성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해양수산부와 관련업계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조달청을 통해 중앙조달방식으로 계약집행을 의뢰해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모두 48건으로 이중 무려 23건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됐었다.



■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고성군침체망인양사업'을 수임, 지난 7월18일 사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침체망인양선박(300톤급)

어항·항만 건설 때 친수공간 확충

친환경 기술개발 다양화 도모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일반항만 및 어항 등의 신설시 해양관광, 레저기능시설을 반드시 병행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공간확충 및 국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 5개 권역에 전문 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레저산업육성을 위해 앞으로 일반항만 및 어항의 신설 또는 확장시 해양관광, 레저기능시설의 병행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해양레포츠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으며 해양레포츠의 수요증가에 대비, 항만 및 어항개발시 소요를 판단해 적정한 규모의 공공마리나 및 종합레저항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정사업활성화로 국민에게 해양을 통한 여가기회 제공을 위해 수요를 파악, 수도권이나 부산권 등에 적정입지를 선정, 경정장을 설치해 사업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특히 이를 통해 징수되는 경정사업 수익금의 경우 해양레포츠, 해양관광 등 해양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해양박물관을 5개 권역에 건립키로 하고 △갯벌염전지역은 소금 또는 염전박물관 △주요 수산지역은 어업박물관 △주요 항만지역은 항만역사박물관 △수도권지역은 해양문화·레저센터 △공룡알화석지역은 해양자연사박물관을 각각 건립키로 했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에는 해양과학관 및 수족관을 건립, 지역주민들을 위한 해양체험의 장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사업시행방식은 외자유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추진을 채택키로 했다.

해양관광지 해상호텔 건립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 등 주요 해양관광거점지역에 해상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주요항에 크루즈전용항만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텔산업육성을 위해 부산 인천 여수 제주 등 주요 해양관광거점지역에 해상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해상호텔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참여자에게 세제상 우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해상구조물 등을 이용한 호텔건립기술개발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주요 항만에 전용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드니항과 같이 동북아의 크루즈허브기능을 보유하는 국제미항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선진국형 해양친수문화공간조성을 위해 기능이 진부화된 부두나 미이용부지 등을 확보해 해양전시관과 해변공원, 전망타워 등 시민휴식공간을 개발하고 해저경관이 뛰어난 곳을 선정, 수중공원 등을 대거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침식실태를 파악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시행토록 하되 일정수준의 정부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교육적, 관광적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공원 등을 대거 조성,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비브리오패혈증 안전대책 당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비브리오패혈균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맞아 이의 예방을 위해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 배포한데 이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과 수산물의 취급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비브리오패혈균(Vibrio Vulnificus)의 발병 및 감염경로는 오염된 연안바다 갯벌에서 잠복해있던 비브리오 원인균이 수온이 18~20℃이상으로 올라가는 5~11월경(주발생기 7~8월)에 주로 나타나므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에 오염된 해수나 갯벌 등을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이 질환은 만성간질환자, 당뇨환자, 알콜중독자, 노약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해안지역에서 낚시 또는 어패류 손질시 피부를 통하여 이 균이 감염되어 발병하나 건강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친후 오한, 발열 등의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 등이 동반되면서 다양한 피부병변이 발생하는 등 사망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예방법으로는 만성간질환자 당뇨환자 노약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어패류를 날로 먹지말고, 비브리오패혈균은 -5℃이하 저온 또는 60℃이상 고온과 수돗물 및 식초에 약하므로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 저온·저장 또는 가열처리 하든지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먹으면 탈이 없다.

특히, 어업인들은 수산물을 취급할 때 수산물에 상처가 나지 않고 신선하게 0℃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얼음에 저장하고, 위판장 어시장에서는 어패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포구의 불결한 하수를 사용하여 씻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조리시에는 비브리오균은 저온과 민물에 약하므로 0℃이하로 저온보관하거나 2차오염 방지를 위해 도마, 칼, 행주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감을산업주식회사 代表理事 朴 漢 祥
☞건화건설주식회사 代表理事 金 金 和
☞김엔고살베지주식회사 代表理事 李 廷 洙
☞남광건설주식회사 代表理事 金 大 起
☞대능건설주식회사 代表理事 朴 厚 根
☞동림종합건설주식회사 代表理事 孔 厚 植
☞주식회사부흥 代表理事 李 相 天
☞우림종합건설주식회사 代表理事 鄭 孝 立
☞태림종합건설주식회사 代表理事 權 奇 瑛

한 국 어 항 협 회

건·강·하·게·삽·시·다

더위를 먹은 사람은 땀을 많이 흘려라

에어컨을 켠 채 잠이 들면 아침에 뜨거운 물에 목욕이 좋아

우리나라의 장마철부터 여름까지의 찌는 듯한 더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더우니까 아무래도 찬 음료수를 많이 마신다. 그러면 밥맛이 없어지고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져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수면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더위를 먹는 게 싫어 하루종일 냉방이 된 방에 있거나 에어컨을 켠 채 자버리거나 하면 반대로 더위를 먹는 상태와 똑같이 되어 두통이 있거나 감기에 걸린 것같이 몸에 열이 나거나 크게 심해지면 토사곽란을 일으킨다.

인간의 몸은 수분을 섭취하면 땀을 흘리고 신진대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노폐물이 체내에 남아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열을 흡수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신진대사가 필요하며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이 몸 속에 머물게 되어 열병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더워서 수분이 많이 필요한 때는 물을 많이 먹고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야 한다. 때론 뜨거운 라면이라도 먹으며 땀을 흘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의 쾌적함을 찾게 되고 그냥 하룻밤 내내 켠 채로 자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날 아침에는 으레 몸이 나른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심할 때는 설사를 하는 수도 있다. 그러면 그날 일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에어컨을 켠 채 자면 어째서 몸에 안 좋을까? 그것은 몸이 차가워지면 체온 조절을 위한 땀이 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일정한 온도(예를 들면 36도)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며 그 증발열에 의해 체온은 내려간다. 체온이 내려가면 모공이 닫히고 이른 바 소름이 끼칠 때처럼 피부가 바뀌게 된다. 가능하면 열을 뺏기지 않으려는 몸 스스로의 작용으로 체표 면적을 작게 하려는 작용이다. 추울 때는 옷을 입어서 보온을 하는데 자고 있을 때는 그렇지가 못하다. 당연히 체온이 내려가고 신진대사가 약해지면 혈행도 나빠진다. 그리고 땀도 나지 않으므로 수분 방출의 밸런스도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상태일 때는 우선 강제적으로라도 수분을 방출해서 몸의 밸런스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아침에 목욕을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다. 좀 뜨거운 탕 속에 잠시 들어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땀을 흘리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몸의 밸런스를 회복할 수가 있다. 물론 땀을 흘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목욕 이외의 방법, 즉 조깅이나 가벼운 운동이 비교적 좋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45〕

第4章 地盤改良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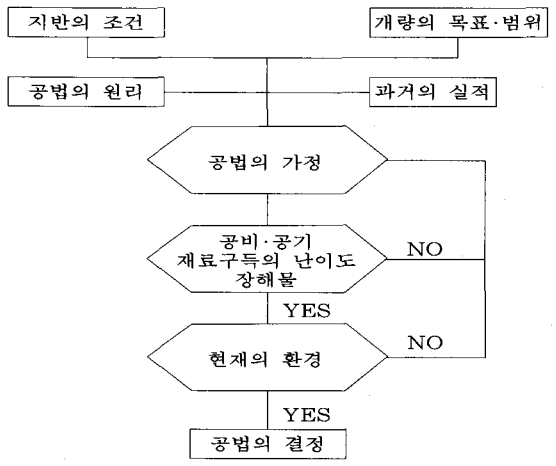


그림 4.1.4 지반개량공법 결정의 표준적인 순서

① 자료조사와 지반조사

기발행된 지형도, 지질도, 근린의 조사관측자료 등 기존자료의 수집, 검토와 시공장소의 지반조사를 한다.

② 조건설정

조사결과로부터 지반조건을 설정하고, 다시 공사의 목적인 구조물의 구조조건을 설정한다. 이때 다음에 제시하는 항목에 대하여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반조건〕

a. 지형적, 지질적 요인
b. 지반의 성층상태
c. 연약층의 층두께와 범위
d. 지지층의 위치와 경사
e. 투수층의 위치와 상태
f.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상태
g. 지반을 구성하는 흙의 물리적, 력학적 성질

〔구조조건〕

h. 형식(재하면의 강성과 형태, 굴착의 형식)
i. 규모(재하무게의 크기·분포상태, 정적인가 동적인가의 하중의 종류, 재하면의 넓이와 배치, 굴착의 깊이와 폭)
j. 중요성과 목적
k. 안정에 대한 안전률
l. 침하, 변형에 대한 허용치

③ 개략적 검토

조건을 설정한 후, 지반개량을 시행하는 공법과 지반개량을 시행하지 않는 공법의 몇 종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지반개량을 하지 않는 공법에 대하여는 지지력과 침하의 검토, 골동파괴나 변형, 토압, 투수성 및 액상화 등에 관한 안정성의 검토 및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하여도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지반개량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혹은 지반개량의 유효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지반개량의 목적을 명백히 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지반개량공법에 대하여 전기한 항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④ 공법의 비교

개략적인 검토를 한 각공법의 비교검토를 한다. 공기나 공사비를 비교하는 동시에 과거의 실적을 참고로 하여 시공의 난역도와 공법의 신뢰성에 대하여 비교한다. 또한 린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조건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완전무결한 지반개량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공법을 비교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남긴채로 공법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사후대응에 대하여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⑤ 공법의 결정

지반개량공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지반조건, 개량의 목표와 범위, 공사비, 공기, 재료구득의 난역도, 장애물의 유무 및 환경조건 등 다방면으로부터의 종합적인 고찰이나 검토가 필요하다.

지반조건이란 지반면의 경사도나 고저 등의 지형조건, 토층의 성층상태, 토질의 층두께, 지하수의 상태 등 지반의 종합적 조건이다.

개량의 목표와 범위는 개량에 의하여 어떠한 지반조건으로 일을 끝낼 것인가,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이다. 예컨대 전단강도를 몇으로 하느냐 라는 목표나, 구조물 완성후의 잔류침하를 얼마만큼 억제하느냐 등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투수성을 변화시킬 경우, 또 요구가 단지 공사중만의 가설적인 것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다. 범위는 평면적인 구역외에 어느 깊이 까지 개량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중요한 요소로 되는 경우가 많다.

♣ 생활정보

의 약 분 업

감기약을 먹을 때도 병·의원에 가야 하나요?

1.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의약분업을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와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약사법에 의사의 예외 규정과 약사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조제가 허용된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장기이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 전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자 △결핵환자(보건소 보건지소 및 대한 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의 의사·약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 의약분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안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도 약물의 여러 속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했고, 약사도 임상 진단에 주의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의료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의료 형태를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각자의 전문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약제비가 절감됩니다.

지금까지 의사나 약사는 약품의 취급을 통해 일정부분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약값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물로 인한 경제적 이윤이 제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의 과다 투여 등으로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국민이 부담하는 의약품 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듭니다.

의약분업을 하면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됩니다. 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조제 투약하기 위해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약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필요 이상 많이 투여되거나 잘못 사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조제·투약을 받아야 하므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환자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지금은 어딜 가든 한 번이면 되는데, 분업을 하면 '병원 갔다 약국 갔다' 두번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원과 병원 수만큼 약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가는 동안, 가서 진찰을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서 집에 오는 동안 최소한 1개 이상의 약국이 많이 존재합니다.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병원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불편이 더 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바쁜 일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후에 약을 찾아갈 수 있으며, 환자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므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약사의 참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환자나 의사, 약사가 모두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 정부의 충분한 홍보와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날의 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생활정보